

梧峯 申之悌의 生涯와 詩에 表출된 鬱結의 樣相*

김기엽**

목 차

1. 머리말
2. 신지제의 生涯와 『梧峯集』에 수록된 漢詩
3. 『檜山雜詠』에 나타난 鬱結의 諸樣相
4. 맺음말

국문초록

梧峯 申之悌(1562~1624)는 조선 중기에 전쟁의 참상을 몸소 체험하였고,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한시 작품을 남겼던 문인이다. 그의 생애는 연보와 행장 및 시기별로 편집된 『梧峯集』을 토대로, 출생부터 문과에 급제하기까지의 ‘修學期’, 壬辰·丁酉의 兩亂을 겪으며 내직과 외직을 오갔던 ‘戰亂收拾期’, 지방의 창원에서 부사로 재직했던 ‘昌原府使在職期’, 체임 후 고향에 물러난 ‘隱居期’ 등의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신지제는 禮安에서 현감으로 재직할 때 壬辰倭亂을 겪고 의병을 일으켰으며, 丁酉再亂 때는 전란을 수습하기 위해 武官을 겸직하여 중앙과 지방을 바삐 오갔다. 이후로는 고향에 물러날 때까지 창원에서 부사로 재직하며 내직으로 복귀하지 못하였다. 평온하지 않았던 시국에 이어서 변방을 전전해야만 했던 신지제는 창원 부사 재직기의 작품에서 많은 울분과 쓸쓸함을 드러내었다. 이 시기의 시 작품은 『檜山雜詠』이라는 편명으로 『梧峯集』에 실려 있으며 문집에 실린 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檜山雜詠』에는 재능을 가지고도 포부를 펴지 못하고 늙어가는 落拓한 처지에 대해 고뇌하고 체념하는 문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이 鬱鬱함은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기 전까지 그가 남긴 시의 주된 정서로 자리 잡게 된다. 신지제는 시를 통해 변방 생활 중에 받았던 비방과 편회에 대한 울분을 달래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屈原과 왕궁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문학전공 박사수료 / E-mail : sinchay@hanmail.net

에서 쫓겨난 王昭君에 자신을 가탁하여 정치적 이상을 구현할 수 없었던 현실과 불우한 처지를 드러내었다. 『檜山雜詠』의 鬱鬱한 작품들은 불합리한 현실과 세태에 대한 신지체의 鬱結이 그의 시문학으로 발현된 것으로, 울결을 표출하는 양상은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전란을 겪은 뒤 피폐한 삶을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관료로서 가졌던 책임과 회의를 시에 담아내었으며, 과거 임진·정유의 전란 때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했던 장수들의 부조리를 시로 풍자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梧峯, 申之悌, 생애, 한시, 不遇, 임진왜란

1. 머리말

한국 漢詩史에서 조선 중기는 전란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뛰어난 한시 작가들이 대거 출현하여 활발한 문학 활동을 통해 詩壇의 번성을 주도하였던 시기라 말할 수 있다. 梧峯 申之悌(1562~1624)는 이 시기에 壬辰倭亂과 丁酉再亂을 겪으며 전란을 수습하고 문인으로서 많은 한시 작품을 남겼던 인물이다.

그는 28세에 과거에서 對策文으로 장원을 차지한 뒤 내직으로 있을 때 同鄉의 관료들에게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고 깊은 우의를 다졌으며, 외직으로 나가서는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고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지방관을 지내면서 선정을 베풀고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전란 후 창원 부사 재직 시에는 明火賊을 체포하고 경내를 안정시킨 공으로 資級을 올려 받았다.

어린 시절에 퇴계 학맥의 金彦璣에게 배우고 金誠一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퇴계 학맥과 학풍을 조금 달리 했던 張顯光을 존유하고 남명 학맥의 학자들과 교류하는 등, 영남의 여러 학풍을 흡수하였다. 또 시강원 문학 겸 지체교를 지내면서 국가의 공적 문장을 담당하여 관각 문학에 탁월한

역량을 드러내었으며, 당대의 저명한 문인뿐만 아니라 師友나 지방관 및 하급 관료들과도 시문을 폭넓게 주고받으며 개인의 서정을 토로하는 순문학 또한 많이 남겼다.¹⁾

전란 속에 의병 활동을 하고 민심을 수습하였으며 지방 풍속을 교화한 뛰어난 공적을 남겼고, 수많은 문인들과 활발하게 시적 교류를 나누며 훌륭한 문예적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는 신지제의 연보를 중심으로 생애 및 학문 경향을 살핀 연구²⁾와 문중의 고문서를 토대로 가계와 사회·경제적 기반을 살핀 연구³⁾만 진행되어 있다.

신지제의 문집인 『梧峯集』은 본집 7권 4책과 별집 1책으로 되어 있다. 본집 중에 1~5권이 漢詩로 구성되어 있으며 뒤이어 간행된 별집에도 적지 않은 수의 시가 실려 있다. 전체 문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시 449題를 통해서 신지제의 문학적 재능이 시를 중심으로 발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업적·사상·교유 및 관계망 등과 더불어 그의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글은 신지제의 시 문학을 살피기 위한 연구로서, 먼저 연대순으로 정리된 『梧峯集』의 구성을 참고하여 그의 생애를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 경계를 이루는 구간을 중심으로 재정리해 보려 한다. 이를 토대로 문집에 실린 한시 중에 가장 많은 작품이 지어진 시기이자 작가 의식이 뚜렷하고 일관되게 표출된 창원 부사 재직기의 작품을 살핌으로써, 시에 나타난 신지제의 사유 및 정서 등을 구명하고자 한다.

1) 심경호(2019), 70~71면.

2) 박명숙(2017), 황만기(2019).

3) 張弼基(2007).

2. 신지제의 生涯와 『梧峯集』에 수록된 漢詩

신지제의 지는 順夫, 호는 梧峯, 본관은 鵝洲, 출신은 경북 義城이다. 그의 본관 鵝洲는 옛날 巨濟郡에 속했던 고을로서 현재 거제시 鵝洲洞에 이름이 남아 있는데, 신지제의 10대조 申允濡와 9대조 申祐를 거치면서 지금의 의성군에 속한 丹密縣에 정착하였고,⁴⁾ 신우의 두 아들 申光富(內府令公)와 申光貴(鳳州公)에서 邑派(內府令公派)와 龜派(鳳州公派)로 나누어졌다. 현재 의성군 鳳陽面 龜尾里에 세거하고 있는 아주 신씨 龜派 중에 梧峯公派가 신지제를 中始祖로 하고 있다.

신지제의 생애는 연보와 행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⁵⁾ 『梧峯集』 또한 본집의 시를 연대순으로 편집하여 대략 언제 지어진 작품인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漢詩가 수록된 각 권 첫 면의 편명이나 첫 작품 하단에는 작품이 지어진 시기와 창작 경위가 小注로 서술되어 있다.

- 『梧峯集』 권1, 『病中漫述』 小注 : 살펴건대, 이 이하는 宣城(예안)에 있을 적에 지은 것이다. 공은 신묘년(1591)에 宣城 수령으로 부임하여 임진년(1592)에 왜란을 만나서 7년 동안 재임하다가 정유년(1597)에 正言으로 부름을 받았다.[按此以下在宣城作. 辛卯知宣城, 壬辰值倭變, 七年居官, 丁酉以正言承召.]

4) 선행 연구에서는 고려 말에 金紫光祿大夫 門下侍郎을 지낸 申益休를 시조로 밝혔으나, 현재 梧峯 宗家에서는 權知戶長을 지낸 申英美를 1세 시조로 하고 있으며, 入鄉始祖는 申允濡, 파조는 申光貴, 中始祖는 신지제로 하고 있다. 이 사실은 신지제로부터 14세인 신수식 고려대 명예교수와 16세인 신명균 중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분 후손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5) 신지제의 생애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연보를 중심으로 한 단선적인 서술로만 밝혀져 있었으나, 심경호(2019)에 의해서 ‘출생에서 임진왜란 직전까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기의 구국 활동’, ‘선조 말 광해군조의 관력’, ‘구미촌의 만년과 죽음 이후’ 등의 네 시기로 정리되었다.

- 『梧峯集』 권2, 『檜山雜詠·上』 小注 : 살피건대, 檜山은 바로 昌原을 가리킨다. 계축년(1613)에 부임하였고, 무오년(1618)에 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按檜山卽昌原也. 癸丑赴任, 戊午遞還.]
- 『梧峯集』 권5, 『龜堂漫錄』 小注 : 살피건대, 무오년(1618)에 檜山에서 체직되어 돌아와, 그대로 구미 별장⁶⁾에서 한가로이 지냈다.[按戊午自檜山遞還, 仍閒居龜庄.]

위 小注의 내용들은 삶의 전환기를 구분하거나 해당 시기의 작품에 나타난 의식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 참고가 된다. 본집 간행 이후에 수습되어 창작 시기가 뒤섞인 별집의 작품은 아래 『五峯集』의 구성에서 함께 살피기로 하고, 생애는 먼저 본집에 수록된 작품과 小注의 내용, 연보 및 행장을 참조하여 다음의 네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 1) 출생부터 문과에 급제하기까지의 ‘修學期’
- 2)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내직과 외직을 오갔던 ‘戰亂收拾期’
- 3) 창원에서 부사로 재직했던 ‘昌原府使在職期’
- 4) 체임 후 고향에 물러난 ‘隱居期’

첫 번째 修學期는 연보와 행장에 소개된 몇 가지 일화를 통해⁷⁾ 신지제

6) 구미 별장 : 아주 신씨(鵝洲申氏)가 세거하고 있는 지금의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龜尾里) 지역을 말한다. 현재 오봉종택(梧峰宗宅)이 남아 있다.

7) 『梧峯集』 「연보」와 행장에서 모친상을 당한 뒤 여동생을 잘 돌보았고, 스승 김언기에 게 인정받았다는 내용 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修學期의 일화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先生自幼好讀書. 嘗挾冊請學於隣老, 老方鉏圃久不出, 先生泣立樊外, 必受課學乃歸. ② 時同學七十餘人, 遞煬書室. 一日先生與參判權公泰一·節度使朴公毅長, 採薪于山, 同伴偶推樵岷, 岷墜崖角死. 其子訴府, 逮捕推者, 先生曰: “吾三人同往, 罪不可獨蒙一人.” 相隨入府庭爭死. 府伯熟視之, 乃謂訴者曰: “三童子俱有幸相氣象, 不忍爲一村氓償命. 官當備棺梓埋爾父, 爾可去也. 謂先生曰: “若等勿慮, 退而讀書.” 仍以書齋近村柴炭之入官者輸書齋, 以代樵勞. 歲以爲常. ③ 有村女美貌者來往

의 성품 및 학문에 대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을 뿐, 작품으로는 20세 때 형과 함께 의성 氷山寺에서 독서할 때를 회상한 시와 27세 때 스승 金彦璣를 애도한 만시만 찾아 볼 수 있다.⁸⁾

두 번째 戰亂收拾期는 1589년 문과에서 異端에 대하여 논한 對策文으로 장원을 차지하고 사첨시 직장으로 벼슬을 시작한 이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전란의 수습을 위해 분주히 중앙과 지방을 오가던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신지제는 1591년에 예안 현감에 제수된 이후부터 1613년 창원 부사에 제수되기 전까지 전라도 도사·예조 정랑·사헌부 지평·전라도 암행어사·통제사 종사관·공조 정랑·충청도 도사 등을 역임하면서 내직과 외직을 오갔다. 『梧峯集』에는 이 두 번째 시기에 禮安에서 지은 35제의 한시가 본집 권1에 실려 있다.

세 번째 시기는 1613년 8월부터 1618년 3월까지 경남 昌原에서 부사로 재직했던 기간이다. 수령으로서 화적을 토벌하여 민심을 안정시킨 공을 인정받아 광해군으로부터 資級을 올려주는[賞加] 敎文을 하사받았고,⁹⁾ 문인으로서 지역 名士들과 교류하며 적지 않은 작품을 남겼다. 경관을 읊고 題詠

寺中，見先生風儀，至夜深踟躕不去。先生默識其意，據義嚴責，使其女取楚而來，撻而遣之。居數十日，其夫持酒饌來饋曰：“聞公以正道教村女，故來謝耳。”蓋其女感先生言，歸告其夫也。

8) 『梧峯集』 권2, 『枕上忽憶三十年前，與家兄及鄰友讀書于氷山寺，寺壁有尹相國題短律，余與鄰友皆次其韻，今尚領其意，而詞則忘之，改綴以遂其意。且寺火于兵而今爲書院，不能無古今存亡之感，而棲息之便，與僧家時大別，有往遊之願不能禁。』

『梧峯集』 권7, 『拾遺』, 『輓惟一齋金公』.

9) 『光海君日記』 115권, 1617년 5월 4일, 刑曹가 “洪州牧使 尹義立은 明火賊인 승려 景栗을, 信川郡守 任碩齡은 明화적인 승려 宏侃을, 昌原府使 申之悌는 明화적인 승려 鄭大立을 마음을 다해 체포하였으니 몹시 가상합니다. 논상하는 일을 상께서 재결하여 결정하소서.”라고 아뢰니, 모두 加資하였다.[刑曹啓曰：“洪州牧使尹義立，明火作賊僧景栗；信川郡守任碩齡，明火作賊僧宏侃；昌原府使申之悌，明火作賊鄭大立，盡心捕捉，極爲可嘉。論賞事上裁啓。” 竝加資.] 이때 품계가 올라 통정대부가 되었다.

에 차운하거나 지인에게 화답·송별하는 내용 외에, 나라에 대한 걱정과 피폐해진 백성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 변방을 배회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이 많은 작품에 드러나 있다. 이 기간에 지은 252제는 『檜山雜詠』이라는 편명으로 본집 권2~권4에 걸쳐서 상·중·하로 수록되어 있다.

네 번째 시기는 1618년 龜尾村에 돌아와서 1624년 63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隱居期이다. 창원 부사에서 물러나면서 그동안 지었던 시를 모아 『檜山雜詠』을 엮고 직접 『檜山雜詠』의 序文을 지었다. 고향에 돌아온 뒤에는 오랜 기간 교유가 있었던 寒岡 鄭球, 東籬 金允安 등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문을 지어 주었으며, 남은 벗들과 세사에 대한 감회를 읊거나 병든 몸을 요양하면서 지냈다. 1623년에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되었지만 이를 사양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향에 은거하였는데 이 시기에 지은 작품 95제가 본집 권5에 『龜堂漫錄』이라는 편명으로 실려 있다.

『梧峯集』 내에 『檜山雜詠』, 『龜堂漫錄』 등 별도의 편명으로 구성된 한시 작품군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전체 문집에서 한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로 정리한 『梧峯集』의 구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梧峯集』 구성

集	冊	卷	분류	비고(작품·작자·연도)	
本集	元	序	序文	梧峯先生文集序 : 李光庭 作(1739)	
		卷1	詩	詩 35題(1591~1613)	
		卷2	詩	檜山雜詠·上, 108題(1613~1618)	
	亨	卷3	詩	檜山雜詠·中, 54題(1613~1618)	
		卷4	詩	檜山雜詠·下, 90題(1613~1618)	
	利	卷5	詩	龜堂漫錄, 95題(1618~1623)	
		卷6	記文	遊清涼山錄(1594), 月影臺記(1613)	
			序文	檜山雜詠序(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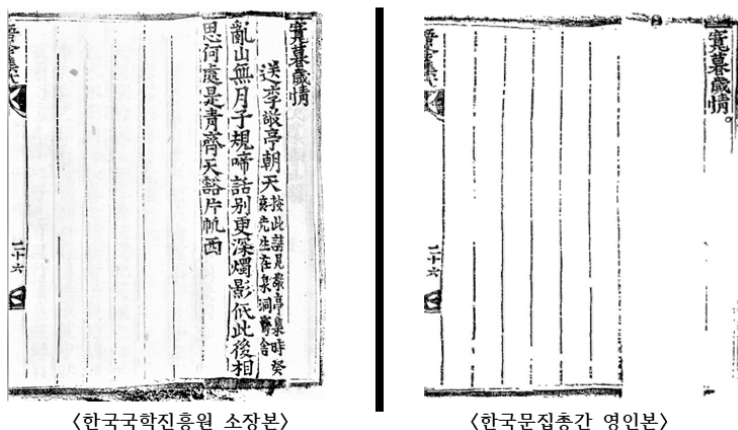
申之梯作

貞	附錄	卷7	笥子, 教書, 祭文, 墓誌, 書簡, 拾遺	憲府笥子(1605), 教宣武功臣李光岳書(1604), 教慰聖功臣高曦書(1604), 教吳連書, 祭鶴峯金先生文(1593), 祭權松巢, 祭李南溪(1609), 祭孫景徵文(1617), 祭內兄朴宣傳官, 祭金察訪, 祈雨祭文, 金察訪墓誌, 鄭衛甫塚文, 與或人書, 與屏山守某書, 答金器仲書, 答金葛峯【得研】書, 寄子【弘望】書, 與金大丘【允安】書, 拾遺(누락된 輓詩, 詩, 祭文)			
				上	行狀	梧峯申先生行狀 : 李民奩 作 梧峯申先生行狀後逸事識 : 李光庭 作(1738)	
					墓碣銘	金應祖 作(1706)	
					墓誌	李光庭 作(1738)	
				下	祭文	李民奩, 申悅道, 金宗一 等이 作	
					輓詞	李好閔, 張顯光, 申悅道(2), 柳珍, 李民奩, 洪璋, 金奉祖, 金宗一(2), 金得研, 李光胤, 李光後, 全以性, 李擘, 李擘, 李詮, 李逢春(2), 申邁道, 趙亨道 等이 作	
					上樑文	藏待書院廟宇上樑文 : 李堂揆 作(1669)	
					奉安文	金啓光 作(1672)	
					祝文	常享祝文 : 李惟樟 作(1672)	
				別集	單		詩
疏	辭承旨疏(1623)						
書簡	上方伯書(1593), 答雪月丈書(4편, 1592)						
識跋	書杜詩抄選卷後, 亡兄手抄性理卷後識(1598)						
祭文	祭鶴洞李公文, 祭盧懼仲【景佖】返纈文						
年譜	梧峯先生年譜 : 申震龜 草						
跋文	梧峯先生別集跋 : 金履萬 作(1742)						
	別集改編後識 : 6代孫 申體仁 作(1789)						
			申之梯 作				

『梧峯集』에 실려 있는 한시는 본집 권1에 35題, 권2 『檜山雜詠(上)』에 108題, 권3 『檜山雜詠(中)』에 54題, 권4 『檜山雜詠(下)』에 90題, 권5 『龜堂漫錄』에 95題, 권7 『拾遺』에 6題가 있고, 별집에도 61題가 실려 있어, 본집과 별집을 포함한 전체 문집에는 총 449題의 시가 수록된 것으로 집계된다. 다만, 소장본과 달리 영인본에는 누락된 시가 보이므로 전체 작품 수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자 한다.

한국고전번역원의 해제 대본¹⁰⁾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3648-文40-72)으로 밝혀져 있다. 이 판본의 간기와 구성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과 동일하지만, 한국문집총간 영인본의 「拾遺」에서 「送李敬亭朝天」라는 한 작품이 결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시는 1623년 중국에 사신가는 李民宥(1570~1629)을 전송할 때 鵝洲申氏의 泉洞齋舍에 있던 신지제가 지어 준 것인데, 아래 그림처럼 본집 권7 「拾遺」의 끝에 수록된 작품이 한국문집총간 영인본에서는 마치 종이를 덧댄 듯이 지워져 있다.

『梧峯集』 권7 「拾遺」 끝부분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그림 1> 소장본과 영인본에 따른 작품 수의 차이

한국문집총간 영인본을 기준으로 하면 「拾遺」에 실린 작품은 祭1·輓1·詩5題가 되고,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을 기준으로 하면 祭1·輓1·詩6題가

10) 한국고전번역원의 『오봉집』 해제에는 권1의 시 36題, 권2~4의 「檜山雜詠」 상(107)·중(54)·하(92) 253題, 권5의 「龜堂漫錄」 192題, 별집의 63題로 도합 544題의 시가 실려 있음을 밝혔다. 여기서는 집계와 정확도나 오류보다 소장본과 영인본의 차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되므로, 소장본과 輓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전체 문집에서 차지하는 시는 449題, 또는 450題로 볼 수 있겠다.

앞서 구분한 생애를 기준으로 본집과 별집의 작품을 모두 합산하면, 『梧峯集』에 실린 전체 한시를 전란 수습기 63제·창원 부사 재직기 277제·은거기 106제 등으로 구분이 된다.¹¹⁾ 여기서 신지제가 창원 부사로 재직했던 5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많은 시가 지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 창작의 動力을 구명하면서 창원 부사 재직기의 시가 편집된 『檜山雜詠』을 중심으로 그의 의식과 시세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3. 「檜山雜詠」에 나타난 鬱結의 諸樣相

창원 부사 재직기에 유달리 많은 작품이 창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신지제가 살았던 시대와 처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창작의 동력은 다름 아닌 그의 鬱結로 보인다. 鬱結은 情志가 불편하여 침체된 상태를 총칭한 것으로,¹²⁾ 여기서는 창원 부사로서 겪었던 곤궁과 자기 연민, 막막

11) 별집에 수록된 61題는 본집에서 누락된 신지제의 시를 실은 것이다. 전제 문집에서 전란 수습기의 63제는 본집 권1 35제·권7 「拾遺」 2제·별집 26제를 합산한 것이며, 창원 부사 재직기 277제는 본집 「檜山雜詠」 252제·별집 25제를 합산한 것이며, 은거기 106제는 본집 「龜堂漫錄」 95제·권7 「拾遺」 1제(한국국학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기준)·별집 10제를 합산한 것이다. 「拾遺」에서 창작 시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세 작품 「海上遇故人」, 「用古人韻, 示器仲」, 「松亭會酌, 逢雨霑濕, 仍詠其事」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2) 柳泳秀(1995), 127~128면 참조. 鬱은 『內經素問』 「舉痛論」에서 “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 故氣結矣.”라 하였으며, 『內經靈樞』 「本神篇」에 “愁憂者, 氣閉塞而不行.”이라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신 의학에서는 鬱을 情志에 배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鬱證의 病因을 情志不舒로 인한 七情之鬱로 논하고 있다. 즉 七情이 지나쳐서 氣鬱로 인하여 病變이 발생하며, 七情에서 喜를 제외한 여섯 가지의 정서가 모두 心氣를 鬱結시킨다고 보는 등, 광범위한 개념으로 鬱을 이해하고 있다.

한 심사, 맏힌 응어리 등 전란수습기나 은거기의 작품들과 전반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정서들을 포괄한 말이다.

신지제는 아버이를 모시기 편하다는 이유로 임진왜란 전년도에 제수된 예안 현감을 달갑게 여겼으며, 은거기에는 고향에 돌아와 계모를 모시다가 생을 마쳤다. 이를 보면 전란수습기와 은거기에는 내직에 대한 미련이나 외직에 대한 심리적 불편이 크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전란수습기의 작품(권1)에는 왜적에게 유린당한 나라를 위한 우국충정, 국토를 수복하기 위한 결의나 바람을 읊은 시들이 다수 있어 율결과는 정서적으로 거리를 멀리 한다. 또한 은거기(권5 『龜堂漫錄』)에는 龜尾里에서 맞이한 사계절의 정취나 향촌 사회의 모습을 담담한 어조로 그려내고, 간혹 명나라의 쇠퇴와 후금의 흥기에 대한 주제로 시를 지었다. 전란수습기와 은거기의 작품들은 여기서 다루는 창원 부사 재직기(『檜山雜詠』)의 작품과는 정서적으로나 창작된 작품 수로나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신지제가 활동했던 시기는 조선 중기의 전란기와 전란을 겪은 후까지 걸쳐져 있다. 조선 중기 이래 시에 뛰어난 작가들이 대부분 불우한 환경을 겪었다는 실상 때문에, 불우한 환경이 시를 뛰어나게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 채 논의되는데,¹³⁾ 이 시기에 뛰어난 시인이 대거 출현했던 것은 당시의 불안했던 정국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시대가 평온하지 않으면 시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어려운 일을 겪은 뒤에 좋은 시가 나오듯, 조선 중기의 시단 역시 불안한 시국을 거치면서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불우·곤궁한 처지와 좋은 작품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司馬遷이 이미 『史記』 『太史公自序』에서 언급하였고,¹⁴⁾ 歐陽脩도 ‘궁한 뒤에 좋은 작품이 나

13) 이종목(1995), 31~37면.

14) 『史記』, 『太史公自序』, “昔西伯拘羨里, 演周易; 孔子厄陳蔡, 作春秋; 屈原放逐, 著離騷; 左丘失明, 厥有國語; 孫子臏脚, 而論兵法; 不韋遷蜀, 世傳呂覽; 韓非囚秦, 說難、孤憤; 詩三百篇, 大抵賢聖發憤之所爲作也. 此人皆意有所鬱結, 不得通其道也, 故

온다.[窮而後工]¹⁵⁾라는 말을 남겼으며, 韓愈 또한 『送孟東野序』에서 “평안하지 못하면 소리를 낸다[不得其平則鳴]”라고 하였다. 한유가 말한 不得其平이 국가나 시국의 쇠망, 혹은 개인의 불행에 대한 것인지는 이미 논의가 되어 있는데,¹⁶⁾ 江南으로 가는 것에 鬱結을 품은 孟郊와 南方의 변방에서 오랜 기간 벼슬하며 鬱結을 표출했던 신지제는 그 모습이 많이 닮아 보인다.

‘평안하지 못하면 소리를 낸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신지제의 『梧峯集』에 실린 한시 중에 가장 많은 작품(『檜山雜詠』 상·중·하)이 창원 부사 재직기에 지어졌다. 이 시기는 비록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만 굴곡진 삶에서 비롯된 문학적 역량이 최고로 발휘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수많은 작품에 그의 窮함과 不平이 표출되어 있다. 이 『檜山雜詠』에 수록된 작품에는 재능을 가지고도 포부를 펴지 못하고 지방에서 세월을 보내며 고뇌하고 체념하는 문인의 모습이 꺾인하게 그려져 있으며, 이 鬱鬱함은 신지제가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기 전까지 그가 남긴 시의 주된 정서로 자리 잡게 된다.

1) 재능을 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울분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모습은 『檜山雜詠』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나는 안 미쳤는데 남들은 미쳤다 하고, 한평생 떠도는 신세 정말 처량하구나.
수심 속에 백발은 비녀 채우기에 짧지만, 취중에 청평검을 칼집에서 길게 뽑아 보네.

述往事，思來者。”

15) 歐陽修, 『梅聖俞詩集序』, “蓋愈窮則愈工, 然則非詩之能窮人, 殆窮者而後工也.”

16) 노장시(2006), 47~62면.

나그네는 새해 맞을 때마다 자주 놀랐고, 갈림길에서 친구에게 술을 자주 권하도다.

그대 떠난 뒤 중천에 밝은 달 떠올라, 끝없이 뾰족한 산들 나의 애를 끊는 구나!

自謂非狂人謂狂, 百年萍梗足淒涼.
 愁邊白髮盈簪短, 醉裏青萍拔鞘長.
 爲客屢驚新歲律, 臨歧頻勸故人觴.
 海天明月君歸後, 無限尖山割我腸.

위는 「廣文과 彥時를 전송하며 술자리에서 어지러이 짓다」¹⁷⁾라는 시이다. 廣文은 창원에서 教授를 지냈고 『嶽堅詩集』을 남긴 朴瑞龜(1546~1623)로, 신지제가 창원 부사로 있던 당시에 유난히 많은 시를 주고받았던 사람이다. 남들에게 미친 취급을 당한다는 첫 구절부터 세상에 대한 울분을 토해내고,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에서 변방을 떠도는 처지를 자탄하며, 두보의 “짧은 머리 비녀에 부쳤다[短髮寄簪纓]”와 백거이의 “비녀 꽃을 머리 듭성하다[華簪髮不勝]”를 차용하여 늘그막에 말직에 엮매인 모습을 그려내었다.

타향 창원에서 자신의 외로움과 울분을 달래 준 것은 산천과 가끔씩 찾아주는 정다운 벗들이었다. 마지막 구절은 정든 벗인 광문과 언시를 전송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부분으로, 유종원의 시 「與浩初上人同看山寄京華親故」에 “해변의 산들 뾰족뾰족 칼끝이 솟은 듯, 가을이 되니 도처에서 나의 애를 끊는구나. 이 몸이 천억 개로 변할 수만 있다면, 꼭대기 날아 올라가서 고향을 바라보련마는.[海畔尖山似劍鋌, 秋來處處割愁腸. 若爲化得身千億, 散上峰頭望故鄉.]”이라는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신지제는 간혹 우울함 속에서 내면에 품고 있던 포부를 드러내기도 하

17) 『梧峯集』 권2, 「檜山雜詠·上」, 「送餞廣文彥時, 酒席亂稿」.

였다. 여기서 인용된 청평검은 아직 남아 있는 젊은 날의 호기를 나타내면 서도, 이를 세상에 활용하지 못하고 취중에서나 발휘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울분을 동시에 함유한 물건이라 할 수 있다. 보검이나 예리한 물건을 인용한 시에는 아래처럼 불우의 반발에서 비롯된 재주에 대한 자부나 자기과시가 드러나기도 한다.

하찮은 벼슬살이로 늙어가지만, 궁한 처지에도 심지는 변함없어라.
 하늘을 찌르는 자검을 꺼내고, 서릿발 먼 송곳을 어루만지네.
 지금 세상에 풍후가 없으니, 언제 월지를 벨 수 있겠는가.
 와신상담의 쓴 맛은 보지 않고, 한갓 공시만 살피려 하는구나.
 薄宦人將老, 窮途志未衰.
 衝霄開紫劍, 撫穎帶霜錐.
 今世無風后, 何年斬月支.
 未嘗薪膽苦, 徒欲察功緹.

‘支’ 자 운목을 이용해 감회를 읊은 8수 중 두 번째 시이다.¹⁸⁾ ‘紫劍’은 땅속에 묻혀 하늘 위로 紫氣를 발산했다는 龍泉劍으로 재주를 품고도 불우하게 변방 창원에 묻혀있는 자신을 빗댄 말이다. 또 ‘서릿발처럼 번뜩이는 송곳[霜錐]’은 趙나라 平原君의 식객이 스스로를 인재로 추천했던 毛遂의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¹⁹⁾ 龍泉劍과 송곳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는 신지제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시에 인용된 風后라는 인물은 握奇라는 軍陣을 고안하여 『握奇經』이라

18) 『梧峯集』 권2, 「檜山雜詠·上」, 「綴支韻, 多遺字, 足以長短諸篇, 因述遺懷」 8수 중 2수.

19) 『史記』 卷76, 「平原君列傳」, “내가 진작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만 있었다면 송곳 자루까지 다 나왔을 것이요, 그 끝만 보일 뿐이 아니었을 것이다.[使遂蚤得處囊中, 乃穎脫而出, 非特其末見而已.]”

는 병법서를 남겼다는 黃帝 때의 재상이다. 고사에 따르면 황제가 일찍이 큰 바람이 불어 세상의 먼지를 날려 버리는 꿈을 꾸 뒤에 풍후를 얻어 정승으로 삼았다고 한다.²⁰⁾ 月支는 옛날 西域에 있었던 부족 이름으로 月氏라고도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세상에 오랑캐를 소탕할 훌륭한 인재가 없음을 한탄하면서 황제가 풍후를 등용하듯 자신이 중용된다면 왜구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지막 구절의 功總는 상복 五服 중에 小功服과 緦麻服을 가리킨다. ‘상복의 경중만 살핀다’²¹⁾는 말은 치욕을 씻을 결의는 다지지 않고 안주한 채, 근본적인 것은 제쳐두고 지엽적인 것만을 논하는 세태를 개탄한 것이다.

아래는 한밤중에 감회가 일어 지은 2수 중 두 번째 시에서²²⁾ 頸聯과 尾聯에 해당하는 구절이다.

.....

용천검이 보갑에서 울며 광채를 내쏘고, 학은 조롱에서 춤추다 지친 날개 늘어뜨렸네.

난간에 옮겨 서서 밤이 깊어 가는데, 누가 이 비장한 마음을 알아주려나.

龍吟寶匣精光射，鶴舞雕籠病翮垂。

徙倚曲欄仍夜久，壯懷寥落有誰知。

신지제는 자신의 재능을 용천검에, 자신의 처지를 학에 빗대어서 재주와 뜻을 품고도 마음껏 펴지 못하는 울분을 드러내었다. 땅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하늘로 紫氣를 발산했다는 龍泉劍과 쫓나라 王嘉의 『拾遺記』에 “아

20) 『史記』 卷1, 「五帝本紀」

21) 『孟子』, 「盡心上」에 “부모의 삼년상은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시마복과 소공복만을 살핀다.[不能三年之喪，而緦小功之察.]”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22) 『梧峯集』 권2, 「檜山雜詠·上」, 「中宵有感·二」

직 쓰이지 않았을 적에 항상 상자 안에 용과 범이 우는 것 같았다.[未用之時，常于匣裏，如龍虎之吟]”라고 한 고사를 인용하였다. 상자 속에 갇힌 보검과 춤추던 학이 날지 못한 채 새장에 갇혀 있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연민이 배어 있는 대목으로, 변방의 창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실의에 빠진 신지제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든다. 깊어가는 밤에 난간을 홀로 서성이며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尾聯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신지제의 고독감이 짙게 묻어나는 구절이다.

2) 폄훼와 비방에 대한 답답한 심사와 문학적 대응

신지제가 창원 부사 재직기 중에 지은 『檜山雜詠』에는 억울하게 비방을 받았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을 시로 토로한 작품이 2편 실려 있다.

비방 받은 지 오래되니, 뜯소문에 시비가 정해지네.

유종원은 억울함 풀기 어려웠고, 도연명은 오히려 귀향이 늦었지.

위안 편지 아는 사람끼리 자주 전하지만, 잘못 든 길에서 홀로 슬퍼함이 한스럽네.

구름 위로 까마득히 나는 새, 멀리 나는 것 부러워 바라보노라.

速謗彌年所，流言定是非。

柳州難解祟，彭澤尙稽歸。

唁札煩相識，迷途悵獨悲。

冥冥雲外鳥，目送羨高飛。

이 시의 제목은 『趙任道가 전후로 두 번 뜯소문을 채록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고을 사람이 모함하는 말에서 나왔다. 아직도 결연히 떠나가지 못하여 우스워서 짧은 시를 짓다.』이다.²³⁾ 신지제가 창원 부사로 있을 적에

23) 『梧峯集』 권2, 『檜山雜詠·上』, 『趙生【任道】前後兩采浮言送書, 蓋出於邑人推擠之

어떤 사람이 대궐에 납부할 綿布 40필을 사사로이 썼다는 말을 지어낸 적이 있는데, 이를 지인인 澗松 趙任道가 전해 듣고 서찰을 보내어 경계시키자, 근거 없는 사실임에도 소문을 믿고 서찰을 보낸 벗에게 실망을 내비치며 柳宗元과 陶淵明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조적인 태도를 보였다.²⁴⁾ 자신의 창원 부사 생활을 永州司馬로 폄척되었다가 柳州刺史로 옮겨져서 죽을 때까지 복귀하지 못했던 유종원에 빗대고, 작은 녹봉에 연연하여 비방을 감수하며 차마 떠나지 못한 신세를 五斗米에 미련두지 않고 과감히 『歸去來辭』를 읊으며 栗里로 떠났던 彭澤令 도연명에 대비시켰다.

답답한 속세를 훌쩍 벗어나 저 높이 나는 새처럼 시끌시끌한 세상의 시비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냈는데, 시문학으로 답답한 심정을 달랜 것은 작자의 의연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쁜 공무 중에 늙고 병든 몸, 마루에 앉아 창천 향해 휘파람 부네.
하늘의 속박 벗어남은 누구의 힘인가, 오늘날 대각에는 좋은 사람 있구나.
簿牒叢中老病身, 空堂坐嘯向蒼旻.
脫來天罽誰爲力, 臺閣如今有好人.

『鵝溪 李山海의 문집에 실린 절구 세 수에 차운하되 본래 시의 뜻은 쓰지 않다』²⁵⁾라는 제목의 3수 중 마지막 수이다. 시 본문 하단의 小注에는 “당시에 시관으로 논핵을 받았다[時以試被論]”라고 적혀 있으며,²⁶⁾ 제목 하단의

語. 尙不決去, 可笑, 成短律」

24) 이 “柳州難解崇 彭澤尙稽歸”는 송나라 陳與義의 『謹次十七叔去鄭詩韻. 二章以寄家叔, 一章以自詠』 첫째 수에도 유사한 부분이 보인다. “蚍蜉堪笑亦堪憐, 撼樹無功更怫然. 賦就柳州聊解崇, 詩成彭澤要歸田.”

25) 『梧峯集』 권2, 『檜山雜詠·上』, 『次鵝溪【李公山海】卷中三絕韻. 不用元韻意』

26) 연보에 신지제가 1614년 8월에 식년시 監試를 관장하였으며 9월에 무과 都會試를 관장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무과 도회시에 대한 시는 한참 뒤에 등장하므로,

小注에는 寒岡 鄭述로부터 받은 서간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臺諫의 평론이 試官들에게 두루 미쳤는데, 뜻밖에 자네 또한 그중에 들어 있었네. 하지만 성상께서 대신들의 獻議에 따라 특별히 용서해주었다네.”²⁷⁾라는 구절로 보아, 탄핵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바쁜 가운데 늙고 병든 몸이지만, 넓은 마루에서 푸른 하늘을 향해 휘파람을 불며 앉아 있는 한가한 모습에서 주변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의연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여기서는 대간의 탄핵 덕분에 속박되어 있던 공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임을 기꺼워하며, 오히려 자신을 탄핵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신지제는 그릇된 비방과 폄훼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시를 통해 억울함과 결백함을 담담하게 그려내었다. 실제 40필의 면포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민환이 쓴 행장에 신지제의 결백이 결국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신지제의 의연한 태도에 감복하였다는 내용이 보이며,²⁸⁾ 시관으로서 받았던 대간의 탄핵 또한 임금의 용서를 받아 무마되었다.

3) 정치적으로 소외된 인물에 가탁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외지로 쫓겨나 쓸쓸하게 살다간 대표적인 인물로는, 참소를 당하고 쫓겨나 어지러운 나라를 걱정하다 瀟湘에 몸을 던진 楚

이때 빌미가 생겨 사헌부에 의해 탄핵을 당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겠다.

27) 위의 시 小注, “按寒岡書曰: ‘臺評泛及考官, 不意尊亦在其中. 聖恩特原於大臣獻議云.’”

28) 李民寯이 쓴 행장에 ‘어떤 관원이 신지제가 궁에 납부할 무명 40필을 사사로이 썼다는 말을 지어내어 정인홍에게 일러 바쳤다. 신지제는 자신을 무고(誣告)한 이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신지제의 결백함이 밝혀졌고 사람들도 그의 태도에 감복하였다.’라고 한 내용이 있다. (『梧峯集』 『附錄·上』, 『有明朝鮮國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贈嘉善大夫史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梧峯申先生行狀』)

나라의 충신 屈原과, 元帝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흉노에게 보내진 漢나라의 공녀 王昭君을 꼽을 수 있다. 落拓한 처지를 적실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 한시 작가들이 애용하는 소재로, 『檜山雜詠』에도 신지제가 굴원과 왕 소군에 정치적으로 소외받는 처지를 투영하여 지은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²⁹⁾ 굴원에 자신의 모습을 빗댄 표현은 『檜山雜詠』 곳곳에 보이는데, 각 시의 제목과 해당 구절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梧峯集』 권3, 『檜山雜詠·中』, 『放吟』
우선 술 한 잔 마시리니, 초 대부처럼 깨어 있지 않으리
且把盃中物, 毋醒楚大夫

- ② 『梧峯集』 권3, 『檜山雜詠·中』, 『遣懷四十韻』
유세하여 소진의 귀함을 비웃고, 술 깨어 굴원의 초췌함을 딱히 여기네.
游笑蘇公貴, 醒憐楚客癯.

- ③ 『梧峯集』 권3, 『檜山雜詠·中』, 『次廣文韻』
팽택 현령은 술 한 잔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초나라 객은 마의에 익숙한 것 공연히 자랑하네.
彭澤眞思傾秬醪, 楚人虛詫慣麻衣.

- ④ 『梧峯集』 권3, 『檜山雜詠·中』, 『綴支韻多遺字, 足以長短諸篇, 因述遣懷』
천 리 떨어진 미인에게 부치려고, 늘그막에 바닷가에서 강리를 캐네.
欲寄美人千里遠, 殘年水國採江蘼.

29) 해당 단락은 楚辭나 明妃曲 계열의 수용이나 그 표현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부족한 역량과 제한된 지면으로 상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추후에 시의 수용 양상과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기약하고자 하며, 여기서는 울결 양상의 한 면모로 정리했음을 밝힌다.

⑤ 『梧峯集』 권3, 「檜山雜詠·中」, 「次廣文韻」

도감 천 잔의 술이 처량해졌고, 영균 구원의 난초 황폐해졌네.

淒涼彭澤千觴秫, 蕪沒靈均九畹蘭.

⑥ 『梧峯集』 권4, 「檜山雜詠·下」, 「欲吊靈均重感慨」

영균을 위로하여 거듭 감개가 있으니, 좋은 자리에서 혼자 깬 술자리 되
었네.

欲吊靈均重感慨, 勝筵還作獨醒筵.

시에서 楚客·楚大夫·楚人, 靈均 등은 초나라의 삼려대부였던 굴원을 직접적으로 가리킨 말이다. 굴원이 먹라수에 빠져 죽기 전까지 배회했던 瀟湘, 「離騷」에서 읊었던 江離·九畹,³⁰⁾ 「漁父辭」에서 취해 있는 대중들 속에서 혼자 술 깨어[醒] 남들로부터 소외받는 내용 등을 인용하여 자신의 신세를 빚대었다. 신지제가 비록 실제 조정에서 추방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쓸쓸한 변방 창원에서 서성이며 임금 계신 궁궐을 한결같이 그리는 모습은 굴원과 닮아 있다. 임금을 ‘美人’에 빚대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굴원에 늘어버린 자신을 투영한 것은, 정치적 이상을 구현할 수 없었던 당시의 현실 상황과 맞닿아 있으며, 이런 대목은 楚辭에 나타난 특유의 비장미와 접맥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³¹⁾

아래는 王安石의 「明妃曲」을 두고 우리나라의 문사가 지은 시에 차운한 3수로³²⁾, 시의 제목을 통해 신지제가 평소 王安石의 「明妃曲」 중 “인생살

30) 『楚辭』 卷1, 「離騷」, “扈江離與辟芷兮, 紉秋蘭以爲佩”, “余既滋蘭之九畹兮, 又樹蕙之百畝”

31) 신두환(2010), 154~170면.

32) 『梧峯集』 권2, 「檜山雜詠·上」, 「平居余嘗誦荊公賦王昭君人生得意無南北之句, 每致疑以爲失昭君心, 且不宜以此說爲臣妾道. 又得東國詩宗二絕, 其意祖荊公. 余反其意, 因以其韻賦二絕, 又一絕詩家皆咎毛公, 余以昭君自咎, 次別韻」

이의 성취란 남북이 따로 없네.[人生得意無南北]³³⁾라는 대목을 불온하게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레타고 한나라 궁궐을 나온 뒤로, 만 리 먼 땅에서 임금을 그리는구나.
본국 땅에 뼈 묻지 못함을 한탄하고, 오랑캐 임금 모신 것 부끄러워하였지.
氈車一出漢關門, 萬里迢迢戀至尊.
恨未埋身關內土, 恥將巾鏡事胡君.

모래바람 속 이역에서 날마다 시름하는데, 기러기만 해마다 고향으로 보내네.
한이 무덤 위 푸른 풀에 서렸으니, 그곳의 봄빛 한나라 향한 마음이라.
風沙日日愁胡地, 鴻鴈年年送故鄉.
冤恨分明墳上草, 一區春色奉天王.

누가 미녀를 추녀로 잘못 그렸나. 화공의 탓으로 원망하고 나무라네.
본래 첩의 몸은 기구한 운명이라. 평생 임금 모실 팔자 아니었다오.
誰將妍醜誤毫端, 却向毛公欲怨難.
自是妾身多薄命, 一生無分對龍顏

시의 제목에서 왕소군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臣妾의 도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왕안석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³⁴⁾ 신지제가 지

33) 왕안석이 지은 『명비곡』 2수에 “한나라 은혜 얕아질수록 오랑캐 은혜 깊어지니, 인생 살이 성취란 남북이 따로 없네.[漢恩自淺胡自深, 人生得意無南北.]”라는 구절을 가리킨다. 여기서 “生得意無南北”은 ‘得意’가 ‘失意’로 바뀐 곳도 있다. 곧 “인생의 실의는 남쪽과 북쪽이 따로 없다네[人生失意無南北]”로 해석하여, 왕소군이 한나라 元帝나 單于에게 똑같이 실의했음을 말한 시로 이해하기도 한다.

34) 『梧峯集』 권2, 『檜山雜詠·上』, “평소에 나는 왕안석이 왕소군을 읊은 시에 ‘인생살이 성취란 남북이 따로 없네’라는 구절을 외웠는데, 그때마다 왕소군의 마음을 잘못 알았다는 의심이 들었고, 또 이 말이 신첩의 도리에 맞지 않다고 여겼다. 또 우리나라에서 시로 으뜸인 사람의 시 두 수를 보니, 그 뜻이 왕안석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은 앞의 2수는 「명비곡」에 차운한 이산해의 「王昭君」 2, 3수에 차운한 것이며³⁵⁾, 마지막 수는 왕소군의 미모를 왜곡해서 그런 모공을 탓하지 않고, 왕소군이 자책한다는 뜻으로 운자를 달리하여 지은 것이다.

당세의 개혁 의지와 풍자 의식에 근거한 왕안석의 과격한 「명비곡」은 남송인들에게 혹평을 받았으며, 이와 유사한 양태로 한나라에 대한 충정보다 單于의 은혜를 긍정한 시를 지었던 이산해도 흥만중에 의해서 이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체념·원망·궁궐에 대한 그리움 등을 표현하며 왕소군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조선 대부분의 작가들과 마찬가지로,³⁶⁾ 신지제 또한 이산해를 ‘東國詩宗’이라는 역설적인 말로 기롱하고 그의 시에 차운하여 자신의 단심을 표출하였다.

하얀 풀[白草]이 많이 자라는 흉노 땅에서 왕소군의 무덤에만 자란 푸른 풀[靑草]을 왕소군의 한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마음이 발현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인용하여 임금 계신 대궐을 향한 변함없는 충심을 나타내었다. 운자를 달리해서 지은 마지막 수에서는 외진 창원에 부임하게 된 것을 소인배의 농간 탓으로 돌리지 않고, 仕宦의 浮沈을 자신의 운수에 맡기려는 체념적인 태도도 엿보인다. 궁녀로서 왕소군의 才는 뛰어난 미모이다. 미모를 가지고도 불우했던 왕소군과 재능을 가지고도 변방에 처한 자신을 동일시하고, 황제에게 버림받아 먼 이역에서 살다간 왕소군의 불

그 뜻과 반대이므로 차운하여 두 수를 짓고, 또 시인들이 모두 모공을 탓하였지만 나는 왕소군이 자책한다는 뜻으로 운자를 달리하여 절구 한 수를 지었다.”

35) 『鵝溪遺藁』 권4, 후집 『鷗浦錄』, 「王昭君」, “단장한 삼천 궁녀 대궐에 가득하니 지척 간에도 지존을 뵈 길 없었지. 그 당시 이역으로 가게 되지 않았다면, 한나라 궁실에 누가 왕소군을 알았으랴.[三千粉黛鎖金門, 咫尺無因拜至尊. 不是當年投異域, 漢宮誰識有昭君]”, “세간의 은혜와 사랑 원래 무정하니, 이역의 궁성이 반드시 타향은 아니리. 깊은 궁궐에서 외로운 달을 벗어나, 일생 동안 천자를 못 뵈는 것 보다는 낫겠지.[世間恩愛元無情, 未必氈城是異鄉. 何似深宮伴孤月, 一生難得近君王]”

36) 여운필(2001), 5~44면.

우에 중앙 조정과 멀리 떨어진 창원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불우를 투영하여 정치적으로 소외받는 처지에 대한 鬱結을 나타낸 것이다.

4) 늘그막의 안타까움과 과거 궁중에 대한 그리움

변방을 전전하며 중앙 조정의 반열에 들지 못했던 현실에서 신지제의 울결을 달래기 위한 문학적 해소는, 시에서 지난날 평탄했던 시절을 되새기며 궁궐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의 이면에는 대개 현재의 늙은 모습이 대비되어 그려지고 성은에 보답하지 못하는 서글픔과 자신 반성이 드러난다.

구만리 바람 타고 여섯 달을 날아서, 젊은 나이에 광한루에 이름을 올렸네.
금문의 큰 계책은 남들을 압도하고, 청운의 길에서 못 영재들이 한 걸음을
양보하였지.

북두성 돌아 계절 바뀌니 번번이 놀라고, 오르내리는 운수 남쪽 고을에 떨
어진 것 어찌 한탄하리.

늘그막에 미련남아 떠나가기 어려우니, 늦도록 임금 은혜 갚지 못했기 때문
일세.

九萬搏風六月遊, 少年通籍廣寒樓.

金門大策空餘子, 雲路羣英讓一頭.

寒暑屢驚回北斗, 乘除何恨落南州.

殘年顧戀難歸去, 祇爲君恩老未酬.

위의 시에서는³⁷⁾ 과거에 품었던 웅대한 포부를 『장자』 『逍遙遊』의 봉새로 표현하고,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벼슬했던 모습을 신선이 산다는 廣寒宮의 누각을 빌려 그려내었다. 신지제는 1589년 문과에서

37) 『梧峯集』 권2, 「檜山雜詠·上」, 「偶述·二」.

異端에 대하여 논한 對策文으로 28세의 나이에 장원을 차지하고, 사섬시 직장에 이어 사헌부 감찰로 벼슬을 시작하였다. 어느덧 나이를 먹고 내직과 외직을 오가다 남방 창원에서 부사로 늙어가는 신세를 조정에서 남들을 압도하던 젊은 시절과 선명하게 대비시켰다.

『檜山雜詠』에는 단옷날에 궁중에서 행해졌던 의식을 회상하며 당시엔 조정에서 벼슬하던 젊은 시절을 그린 시가 수록되어 있다. 아래는 창원 부사로 재직하던 마지막 해에 단옷날이 되자 감회가 일어 지은 시이다.³⁸⁾

감히 공훈을 하늘에 물어 보지만, 노년이라 벼슬길 주저하게 되네.
 천 리 꿈속의 혼 임금에게 가 있는데, 십 년을 떠돌다 남쪽 변방으로 내려
 왔지.
 단정을 열기도 전에 불은 사그라들고, 푸른 단풍 자주 가져다 불씨 바꾸는
 구나.
 지난 갑진년 단옷날을 생각해보니, 신선들과 유하주에 흠뻑 취했었지.
 敢將勳業問蒼天, 衰景名途自不前.
 千里夢魂縣北極, 十年萍梗落南邊.
 未開丹鼎煉殘火, 頻取青楓鑽改煙.
 憶在甲辰重午日, 流霞霑醉列仙筵.

성은에 보답할 공을 세운 바가 없어 벼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싶으나 이미 늙어버려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멀리 떨어진 남쪽 창원에서 임금을 꿈에서만 그리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어느새 빠르게 흘러버린 세월 속에서 지난날 임금으로부터 술을 하사받아 조정의 다른 신하들과 함께 대취했던 어느 단옷날을 회상하고 그리워하였다. 시의 하단에는 小注가 부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신지제가 관료로 있었던 갑진년(1604) 단옷

38) 『梧峯集』 권4, 「檜山雜詠·下」, 「端陽日有感」.

날에 임금이 술을 내리는 宣醞의 자리에 참석했었고, 그때로부터 15년이 지난 오늘날에 옛일을 추억하며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감회를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

단옷날에는 임금이 술 외에도 올빼미 국을 하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지제는 올빼미 국을 하사받았던 당시를 회상하며, 변방에서 늙어버린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⁴⁰⁾

햇별은 진수에 밝게 비치고, 산봉우리 그늘은 미피로 들어가네.
 모시는 신하는 성을 듬뿍 입어서, 좋은 철에 올빼미 국을 받았지.
 풍진 가득한 서울 길에서, 청운의 뜻을 품고 벼슬했구나.
 지금도 꿈속에 자주 보여, 늘그막에 애간장을 태우도다.
 日色明秦樹, 峯陰入漢陂.
 侍臣沾雨露, 令節賜鴟鵂.
 紫陌紅塵路, 青雲白玉羈.
 至今煩夢想, 歲晏熱肝脾.

‘秦樹’는 秦지방에 있는 나무라는 뜻에서 대궐의 숲을 말하며, ‘漢陂’는 중국 陝西省에 있는 언덕으로 長安 어귀에 있다. 진수와 미피에 내포된 수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궐과 서울의 정경을 나타내고,⁴¹⁾ 젊은 날 서울

39) 『梧峯集』 권4, 『檜山雜詠·下』, 『端陽日有感』, “甲辰年中, 冒忝宮僚, 午日猥參宣醞醉飽, 忽忽今十五年矣. 追感舊事, 仍用嶺南樓韻末句及之.”

40) 『梧峯集』 권3, 『檜山雜詠·中』, 『支字遺韻』.

41) 임준철(2011), 83면. 이 책에서 “의상은 객관적 물상에 대한 지칭적 의미를 넘어서서 言外之意·象外之象을 지향한다.”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 서울 한강의 지류를 나타낸 漢陂라는 시어는 중국 陝西省에 있는 강 이름과 중의적으로 사용한 것인데, 객관적 지명 이상의 복합적이고 정서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섬서성의 漢陂는 일찍이 杜甫가 岑參 형제와 함께 어울려 유람하며 지었던 『漢陂行』을 통해 그 지명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신지제가 두보·잠삼 등의 유명 시인들이 노닐었던 지명을 중의적으로

에서 지냈던 생활을 꿈속에서도 그리고 있음을 말하였다. 성은을 받아 올빼미 국을 받았다는 구절 아래에는 “단옷날의 일을 빌어서 이야기하였다.[五日事借言]”라는 小注가 달려 있는데, 이는 단옷날에 임금의 간악한 자들을 내친다는 뜻에서 올빼미 국을 신하들에게 하사했던 일을 설명한 말이다. 漢나라 때는 단옷날에 올빼미로 국을 끓여 임금이 百官에게 하사하였는데, 이는 올빼미가 제 어미를 잡아먹는 惡鳥이기 때문에 잡아서 국을 끓여 먹게 한 것이라고 한다. 신지제는 꿈에서 임금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던 과거의 영광과 청운의 뜻을 품고 벼슬하던 젊은 시절이 재현되자, 외지에서 늙어버린 현실 속에서 돌아갈 수 없는 지난날에 대한 안타까움을 시로 표현하였다.

앞서 인용한 시 외에 꿈에서까지 임금을 그렸던 신지제의 마음은 「어가 를 모시는 꿈을 꾸고 감회가 일어 짓다」라는 작품에서 엿볼 수 있으며,⁴²⁾ 젊은 시절 성대한 궁중의 생활을 선계에 비유하고 외지 창원에서 부사로 지내는 처지를 하계에 비유한 작품⁴³⁾에서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자신의 지난 시절을 형용하기도 하였다.

5) 백성의 고된 삶과 부조리한 현실 고발

신지제가 시를 통해 표출한 鬱結에는 피폐한 백성에 대한 연민과 무능한 관료로서의 자책 또한 스며 있다. 아래는 신지제가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10수의 시로 읊은 「卽事十絶」의 일부이다.

쓴 것은, 서울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 공간에서 저명한 문사들과 함께 했던 지난날의 감흥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42) 『梧峯集』 권2, 「檜山雜詠·上」, 「夢中陪輦趨殿下, 覺而有感」.

43) 『梧峯集』 권3, 「檜山雜詠·中」, 「綴支韻, 多遺字, 足以長短諸篇, 因述遺懷」 8수 중 1수.

썰렁한 바닷가에 인가 몇 채, 금년에도 세금 무겁다고 괴롭게 말하네.
가족에게 아전 잘 대접하라 분부하고, 곧 거룻배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는구나.

蕭條港口兩三家, 苦道今年重稅科.
分付家人善餉吏, 旋乘舴艋入滄波.

.....

나뭇잎 같은 조각배 가난한 살림인데, 관원들 들이닥쳐 다 거두어 가버렸구나.
輕舟似葉生涯薄, 官將臨門推利多.

아전 사립문으로 줄줄이 들어오니, 잡은 물고기 적은데 바칠 것은 많아라.
아내 울부짖고 남편 달이나 금세 잠잠한데, 시린 달빛만 스산하게 깃발을 비추네.

吏向柴門絡繹過, 得魚稀少稅魚多.
婦呼翁走須臾定, 霜月淒涼映浦沙.

.....

뱃머리에서 나누는 말들 가만히 들어보니, 근래 벼슬아치 전혀 청렴하지 못하다 하네.

靜聽船頭相偶語, 邇來官長太無廉

.....

저물녘 남촌 항구로 싣고 돌아오면, 관리 배에 올라 세금 매기느라 바쁘도다.
黃昏載泊南村港, 官吏登船課稅忙.

추운 연말에 파도 위에서 잠자고, 곧장 서풍을 거쳐 삭풍을 맞네.
일 년 내내 배를 타고 바다를 떠돌아도, 고기 먹는 사람은 정작 어부가 아니구나.

天寒歲暮宿波中，直遡西風到朔風。
終歲滄溟船泛泛，喫魚非是獵魚翁。

.....

노인과 아이 울부짖고 관리 세금 독촉하니, 갈매기 백로 모두 놀라 피해 날아가는구나.

翁兒叫號官催稅，鷗鷺渾驚不近飛

이른 아침 해 뜨자 까마귀 모여 있고, 고깃배 헤아리며 떠들썩한 아전들. 백발의 수령도 붉어진 얼굴로, 붓 들고 저녁까지 세금을 독촉하는구나.

平明日出集烏鴉，括筭漁舟將吏譁。

頭白使君還面赤，拈毫終夕押催科。

여기서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가난한 백성과 세금 매기기에 비뻔 관리들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고단한 백성의 삶을 황량한 바닷가 정경과 함께 고스란히 그려내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없는 살림살이마저 빼앗아 가버리는 가혹한 관리, 독촉을 못 견뎌 울부짖는 아내와 달아나는 남편, 노인과 아이가 울부짖는 모습 등에서 비참함이 극대화된다. 추운 겨울을 가리지 않고 고기잡이에 나서지만 정작 자기가 잡은 고기는 윗사람에게 바쳐지고, 고깃배에 들러붙은 까마귀처럼 세금 독촉하느라 분주한 아전들과 성화를 부리는 자신의 모습에, 수령으로서 미안해하는 심정을 담아내었다.

「苦寒吟」이라는 제목으로 지은 2수 중 두 번째 시⁴⁴⁾에는, 수령으로서 눈 내리고 날씨가 추워질 때가 되자 더욱 고달파질 백성들의 생활을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44) 『梧峯集』 권3, 「檜山雜詠·中」, 「苦寒吟」.

눈 내린 뒤 매서운 추위, 남방의 날씨 으스스하네.
 우물 얼어 밤에 물 길는 이 없고, 땀감 귀해 아침 밥 짓는 연기 끊겼지.
 변방의 대비는 아직도 위급하고, 흉년에도 세금 줄어들지 않았구나.
 백성이 겪는 수많은 고통을, 누가 구중궁궐에 전해 주려나.
 雪後寒威緊，稜稜楚國天。
 井堅稀夜汲，薪貴斷朝煙。
 絕塞防猶急，荒年賦未蠲。
 蒼生多疾苦，誰達九重筵。

추운 날씨에 우물이 얼고 눈이 내려 땀감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흉년을 겪은 창원의 백성에게 세금을 덜어주지 못하는 자책이 엿보이며, 마지막 구에서는 눈앞에 고통 받는 백성의 실상을 임금이 알아주기를 바람이 나타나 있다.

이 시기의 작품에는 전란을 겪은 뒤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에 관료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없는 현실과 자신의 무력함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낸 시가 적지 않게 보인다. 아전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장면을 시를 통해 직접적으로 폭로하고, 세금을 걷어 올려야 하는 위치와 백성을 보듬어야 할 수령의 입장에서 갈등하기도 한다. 백성들의 이품을 달래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작품들을 통해 신지제가 鬱結을 표출하는 양상이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장 군문 앞에 높이 선 깃발, 지휘하는 장교들 모두 용맹한 자일세.
 궁궐에 아된 군공에 대해 들으니, 힘없는 한 아녀자에게 빌린 것이라지.
 大將轅門百尺旗，指揮羣校盡熊羆。
 還聞奏級蓬萊殿，反借區區一女兒。

드넓은 바다에 한 조각 배, 무딘 상앗대로 사나운 왜구 물리쳤네.
 세상 어느 사내들 보다 담대했지만, 제멋대로 공을 차지한 이는 모두 젊은
 이구나.

萬頃滄溟一葉舟，摧殘強虜櫓聲柔。
 人間無膽諸男子，橫帶黃金盡黑頭。

위는 『海錄』 9수 중 6, 7수로 전란이 있었던 과거에 백성의 軍功을 차지
 하였던 장수를 풍자한 작품이다. 이 시의 아래에 부기된 小注의 내용을 통
 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小注) 위 2수는 병영의 아낙에게 준 것이다. 이 아낙이 임진년 밤중에 왜
 인 셋을 만났는데, 뗏목을 타고 와 배를 탈취하려 하였기에 조카 두 명과 함
 께 상앗대를 집어 들고 때려 죽였다. 당시 수군절도사였던 元均이 그 수급을
 가지고 자기 집안 자제의 공으로 올렸다.⁴⁵⁾

小注에 나타난 시의 배경은 왜적이 쳐들어왔던 壬辰이나 丁酉의 일이다.
 밤에 배를 탈취하기 위해 잠입한 왜구를 변변한 무기 없이 물리친 용
 감한 아녀자의 공을 치하하고, 장수로서 부끄러움도 없이 백성의 공을 빼
 앗아 자기 자제들의 업적으로 대궐에 올렸던 원균을 비난하였다. 전란 중
 에 힘없는 아녀자의 신분이라 장수에 의해 공을 빼앗겼던 불공정한 사건
 을 전란이 끝난 창원 부사 재임기에 읊은 것인데, 이는 과거 전란의 체험
 이 시에 표출된 양상을 보여주면서 신지제의 鬱結이 개인과 현재의 영역
 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아래는 임진왜란 때의 일을 떠올리다, 우연히 杜甫의 시를 읊고 감회가

45) 『梧峯集』 권2, 「檜山雜詠·上」, “右二首贈營孃。此孃壬辰夜半，逢倭三人乘桴來欲奪舟，與姪兒二人持櫓拍殺。時水使元均以其級，錄於渠家子弟。”

일어서 지은 시이다.⁴⁶⁾

백성은 겨 죽만 질리게 먹는데, 관아 주방에는 고기 수북하구나.
 유리잔에 삼백 잔 들이키며, 날마다 거나하게 취하네.
 장군은 배 저버리지 않는데, 배는 어찌 장군을 저버리는가.
 한 번이라도 지략을 내어, 오랑개 섬멸한 적 없었도다.
 黎蒼厭糠粃, 廚肉堆繽紛.
 玻璃三百斛, 日日醉醺醺.
 將軍不負腹, 腹何負將軍.
 未嘗出一智, 讎彼頑虜屯.

두보의 시 『嚴氏溪放歌行』⁴⁷⁾ 중에 “살찐 고기와 많은 술을 공연히 서로 요구하다[肥肉大酒徒相要]”라는 부분을 읊고 지었다고 한다. 이 『嚴氏溪放歌行』 또한 두보가 전란에 떠도는 처지를 노래한 것인데, 신지제가 전란을 겪은 후 먼 변방에 부임한 자신의 신세를 이에 투영한 것으로 보인다.

‘장군은 배[腹]를 버리지 않았지만 배[腹]가 장군을 버렸다’는 말은 宋나라 太尉인 黨進과 그의 부하들이 나눈 말을 인용한 것이다.⁴⁸⁾ 이는 위 시의 小注에도 밝혀져 있는데,⁴⁹⁾ 자신만 배불리 먹고 부하들의 굶주림과 원망을

46) 『梧峯集』 권4, 『檜山雜詠·下』, 『憶壬辰年中事, 偶詠肥肉大酒徒相要, 感而述』

47) 『全唐詩』卷220, 『嚴氏溪放歌行』【溪在閩州東百餘裏】, “天下甲馬未盡銷, 豈免溝壑常漂漂. 劍南歲月不可度, 邊頭公卿仍獨驕. 費心姑息是一役, 肥肉大酒徒相要. 嗚呼古人已糞土, 獨覺志士甘漁樵. 況我飄轉無定所, 終日戚戚忍羈旅. 秋霜宿溪素月高, 喜得與子長夜語. 東遊西還力實倦, 從此將身更何許. 知子松根長茯苓, 遲暮有意來同煮.”

48) 『東坡詩集註』 권7, 俗諺云: “大將軍食飽, 捫腹而歎曰: ‘我不負汝.’ 左右曰: ‘將軍固不負此腹, 此腹負將軍, 未嘗出小智慮也.’”

49) 『梧峯集』 권4, 『檜山雜詠·下』, 『憶壬辰年中事 偶詠肥肉大酒徒相要 感而述』 小注, “속담에, 대장군이 배불리 먹고 배를 쓰다듬으며 ‘내가 너[腹]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탄식하자, 좌우의 사람들이 ‘장군은 진실로 그 배를 저버리지 않았지만 우리 배는 장군을 저버렸으니 일찍이 작은 지혜도 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諺云大將軍食飽,

외면한 黨進을 인용하여 임진왜란 때 자신의 배를 불리기만하고 왜적을 물리쳐야 할 본분을 망각한 장수를 비판하였다. ‘겨로 만든 죽으로 연명하는 백성과 고기가 가득한 관아의 부엌’과 ‘배부른 장수와 굶주린 군사들의 모습’ 등, 대비의 양상을 두 가지로 드러내어 아랫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전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실책에 대한 울결을 표출하였다.

4. 맺음말

조선 중기를 살았던 신지제는 28세의 나이로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짧은 기간 중앙 조정에서 벼슬하였고, 禮安에 현감으로 부임한 뒤로는 두 번의 전란을 거치며 전쟁의 참상을 몸소 체험하였다. 그는 전란으로 인한 피해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을 바삐 오가다 결국 고향에 물러날 때까지 창원에서 부사로 재직하였다. 여기서는 연대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집을 참조하여 그의 생애를 출생부터 문과에 급제하기까지의 ‘修學期’, 壬辰·丁酉의 전란을 겪으며 내직과 외직을 오갔던 ‘戰亂收拾期’, 지방의 창원에서 부사로 재직했던 ‘昌原府使在職期’, 체임 후 고향에 물러난 ‘隱居期’ 등의 네 시기로 구분하였고, 창원 부사로 재직했던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가 지어졌음을 파악하였다.

평온하지 않았던 시국에 변방을 전전해야만 했던 신지제는 창원에서 부사로 재직하던 시기의 수많은 작품에서 그 울분과 쓸쓸함을 드러내었으며, 전란을 겪은 후 피폐해진 백성의 삶 또한 이 시기의 시를 통해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체직된 후 고향에 은거했던 신지제는 이 작품들을 수습해 엮어서 『檜山雜詠』이라는 편명을 붙이고 서문 또한 직접 지었다.

捫腹而歎曰我不負汝。左右曰將軍固不負此腹，此腹負將軍，未嘗出小智慮也。』

이 글은 신지제의 문집 『梧峯集』에 실린 한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檜山雜詠」을 대상으로 하고, 이 「檜山雜詠」 전반을 관통하는鬱結과 이 정서가 표출된 양상을 다룸으로써 그의 시세계를 엿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檜山雜詠」에서 끊임없이 표출된鬱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재능을 가지고도 뜻을 펴지 못하는 현실·자신을 향한 비방과 폄훼에 답답한 마음과 시로 대응한 양상·정치적으로 소외된 굴원과 왕소군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 양상·변방에서 늙어가는 모습을 과거의 평탄했던 시절과 대비시키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 양상·백성의 고된 삶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고발 등으로 그 울결이 표출된 양상을 세분화하여 고찰하였다.

현재까지 신지제의 문학 연구는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다. 신지제의 시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그의 생애를 재정리하고, 가장 많은 한시가 수록된 「檜山雜詠」과 「檜山雜詠」의 주된 정서를 다룬 이 글은 문학을 중심으로 한 영역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의 부족한 역량과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신지제의 문예적 역량을 미처 다 드러내지 못하였기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계획했던 추후 과제들을 附言하면서 남은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신지제가 교유한 문인 중에는 저명한 문인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檜山雜詠」에서 가장 많은 시를 차운했던 朴廣文(朴瑞龜, 1546~1623)이라는 인물을 비롯하여 교유한 문인들의 시적 경향 및 交遊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생애 다른 시기의 작품 특징과 비교하거나, 신지제가 차운한 杜甫 시·인용된 唐詩의 비중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學唐의 흔적을 추출하여 風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이후 신지제의 문학 세계가 이상의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연구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郭再祐, 『忘憂集』, 한국문집총간 58.
- 金垓, 『近始齋集』, 한국문집총간 속 9.
- 申之悌, 『梧峯先生文集』,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 申之悌, 『梧峯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BC古朝46-가1753)
- 申之悌, 『梧峯集』, 한국문집총간 속 12.
- 李山海, 『鵝溪遺稿』, 한국문집총간 47.
- 趙任道, 『澗松集』, 한국문집총간 89.
-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77(義城鵝洲申氏 梧峯家門·虎溪家門篇), 2005.
- 김혜숙(2003), 『任鍾의 삶과 시-落拓不遇와 詩의 超脫』, 『한국한시작가연구』 7, 한국한시학회, 383~412면.
- 노장시(2006), 『韓愈의 ‘不平則鳴’說 과 歐陽修의 ‘窮而後工’說에 관한 再論; 작가의 窮達과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47, 한국중국어문학회, 47~62면.
- 민병수(1996), 『한국한시사』, 태학사.
- _____ (2003), 『五峯 李好閔의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7, 태학사, 5~28면.
- 박명숙(2017), 『오봉 신지제 선생의 생애와 학문』, 『동양예학』 38, 동양예학회, 63~94면.
- 신두환(2010), 『계곡(谿谷) 장유(張維)의 한시(漢詩)에 나타난 초사(楚辭) 수용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31, 근역한문학회, 145~175면.
- 신지제 著, 김기엽 외 역(2019), 『梧峯先生文集』 1·2, 한국국학진흥원.
- 심경호(1993), 『한국 한시의 역사』, 『한국한시연구』 1, 한국한시학회, 21~58면.
- _____ (2000), 『한국 한시의 이해』, 태학사.
- _____ (2019), 『《梧峯先生文集》 해제』, 『梧峯先生文集』 1, 한국국학진흥원, 21~71면.
- 여운필(2001), 『한국 한시의 왕소군 고사 수용양상』, 『한국한시연구』 9, 한국한시학회, 5~44면.
- 유영수(1995), 『鬱證에 관한 精神醫學의 考察』, 『원광한의학』 5, 원광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23~140면.
- 이가원(2005),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 이종목(1995), 『한국 한시와 窮達의 문제』, 『한국한시연구』 3, 한국한시학회, 19~48면.
- 임준철(2011), 『조선중기 한시 의상 연구』, 일지사.
- _____ (2013), 『한국 한시에서의 도연명 <擬挽歌辭> 수용과 변주』, 『한국한시연구』 21, 한국한시학회, 291~333면.

- 장필기(2007), 『조선후기 義城 鵝州申氏家の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사학연구』 88호, 한국사학회, 685~718면.
- 정 민(1996), 『16, 7세기 학당풍(學唐風)의 성격과 그 풍정(風情)』, 『한국한문학연구』 19, 한국한문학회, 189~222면.
- 하정승(2014), 『李崇仁 시에 나타난 唐詩風 경향과 미적특질』, 『한문학논집』 39, 근역한문학회.
- 황만기(2019), 『오봉 신지계의 학문 경향과 삶의 제 양상』, 『영남학』 69, 영남문화연구원, 179~211면.
- 황위주(2017),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의 문예 인식(文藝認識)과 한시 창작(漢詩創作)의 양상』, 『국학연구』 31, 한국국학진흥원, 215~250면.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Abstract〉

The life of Obong(梧峯) Shin Ji-je(申之悌) and diverse aspects of feeling heavy in the poem*

Kim, Gi-yeop**

Obong(梧峯) Shin Ji-je(申之悌, 1562-1624) was a writer who experienced the horrors of war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and left many Chinese poems while serving as a local government official. His life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of 'studying' that includes from his birth to passing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uthorizing war' that he went through two wars of Imjin(壬辰) and Jeongyu(丁酉) while serving as a home occupation and outside occupation, 'working as a Changwon(昌原) magistrate that he served as a magistrate in Changwon, and 'retirement' that he went back to his hometown after retiring based on his *Obongjip*(梧峯集) which was edited according to his chronology, life and periods.

During his tenure as a prefect in Yean, he went through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raised up forces. During the second Japanese Invasion of Korea, he worked as a military officer to handle the war and shuttled in a hurry between the central and provincial regions. Since then, he has not been able to return to home occupation serving as a magistrate in Changwon until he went back his hometown. Shin Ji-je, who had to move around the country following a time of chaos, revealed a lot of anger and loneliness in his work of 'working as a magistrate in Changwon', whose poems were published in *Obongjip* unde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Plus project of The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Scholar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orea University.

** Doctor's course completion, Major in Classical Chines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 E-mail : sinchay@hanmail.net

the name of Hoesanjapyeong(檜山雜詠), and take up the largest part of the poems in the literary.

In Hoesanjapyeong, which shows a writer who spends time in the provinces, agonizing and resigning despite his talent, and this melancholy had become the main object of poetry left by him until he retired and went back to his hometown. Through the poem, Shin Ji-je assuaged his anger about slander and denunciation over him during his hopeless life in the back of beyond, and represented the reality and his deprived circumstances of the time when he wasn't able to realize his political ideal by likening himself to Qu Yuan(屈原) who was politically alienated and Wang Zhaojun(王昭君) who was expelled.

The melancholy works of Hoesanjapyeong show feeling heavy of Shin Ji-je and irrational reality corresponding to his poetry, and the way in which he expressed his feeling heavy was not confined to his personal sphere. After the war, he felt responsible for impoverished people as a bureaucrat and sneered at himself being skeptical about his helplessness in the face of the inevitable reality. He also lamented the society that commanders only thought of his own safet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past by satirized it with his poems.

Key words : Obong(梧峯), Shin Ji-Je(申之悌), life, Chinese poem, Underprivileged,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본 논문은 2019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9년 12월 9일 심사 완료하여
2019년 12월 13일 게재를 확정하였음.